

한국독립운동세력과 CC파·역행사의 공동 첩보활동*

梁 志 善**

국문초록

중일전쟁 발발 후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좌우의 독립운동진영은 이를 독립전쟁의 절호의 기회로 여겨 한중공동항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 당시 한국독립운동세력이 정규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한중 공동항전은 실전에 참가하는 것 보다는 첩보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구와 주로 연대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CC파이다. 김구는 중일전쟁 후 후방교란 작전을 수행할 적합한 인물을 찾았고,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조상연이다. 그는 1938년 천진으로 파견되어 이 지역의 일본군 정보를 수집해 김구와 CC파에게 보내는 일을 하다가 일본에 피체되어 순국하고 말았다.

김원봉과 관계를 맺고 함께 천진, 상해 등 각 주요 도시에서 일본군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삼민주의역행사이다. 이들은 적 정세 자료의 번역, 일본전쟁포로의 관리와 훈련, 일본군 내 한인에 대한 선동과 탈출, 일본군에 대한 심리작전 진행, 중국군대에 협조해 선전활동 및 유격전쟁 참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중일전쟁 후 한중 간 공동항일투쟁은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 항전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1931년 일본의 만주침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대부분의 관내지역이 부일, 친일화 되어 독립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았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결코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일방적 수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군 내부에 일본군 정보 수집을 담당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인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중국항일전쟁사의 의미를 세계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한중이 함께 활동했던 역사적 연대감은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한중연합, CC파, 삼민주의역행사, 부흥사, 남의사, 조상연

* 이 논문은 2015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研究專擔助教授 / liangzhishan@naver.com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중일전쟁 후 공동 첩보활동 추진 |
| II. 중일전쟁 전 중국의 지원과 한인의 첩보활동 | V. 맺음말 |
| III. 중일전쟁 후 한중의 대응과 연대 모색 | |

I. 머리말

한국독립운동은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중국대륙, 러시아·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이 중에서도 독립운동의 주요한 근거지는 중국이었다.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들은 서간도와 북간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 그리고 上海·北京·天津·廣州 등 중국대륙 각 지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상호 연대와 연합을 이루며, 공동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중의 공동항전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1910년 나라를 빼앗겼고, 중국도 1931년 ‘滿洲事變’, 1932년 ‘上海事變’, 그리고 1937년 蘆溝橋事件 등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한중은 일본의 침략을 받은 공동의 운명이었고,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상호 연대와 연합을 도모하면서 공동으로 항전하였다.

한중의 공동항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동북과 중국관내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중국 측과 연대 및 연합을 맺었던 사실을 언급하였고,¹⁾ 중국에서도 항일전쟁 시기에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편의 저서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²⁾ 이로써 일본

- 1) 관내지역에서 전개된 한중 연합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로는 김정현, 「제1·2차 國共合作期の 한·중 연대활동 - 黃埔軍官學校 인맥을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46, 2012; 이재명,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 『中國學報』 56, 2007; 張世胤, 「中日戰爭期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對中國外交 - 光復軍 問題를 中心으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한상도,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중국공산당」, 『歷史學報』 174, 2002; _____, 「국제적 반제국주의 연대투쟁으로서의 한국독립운동 - 중일전쟁 전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2006; 韓哲昊, 「1930년대 전반기 한중연대와 항일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김영범, 「조선의용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장간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石源華, 『中韓文化協會研究』, 世界知識出版社, 2007;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_____,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 지성사, 1994; _____,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대한민국임시정부 - 장정시기 -)』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가 있다.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한중 연합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로는 장세운,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추현수,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위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황민호, 「남만지역 중국공산당의 항일무장투쟁과 한인대원 - 한인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고건 외, 『한국 독립운동과 대전자령 전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이 있다.
- 2) 石源華, 「论中日战争期间的韩国临时政府」, 『复旦学报(社会科学版)』 1993年6期, 复旦大学, 1993; _____, 「论抗日战争期间国民政府的援朝政策」, 『抗日战争研究』 1994年2期, 中国抗日战争史学会, 1994; _____, 「韩国独立运动与中国 1945~1995」, 『抗日战争胜利五十周年纪念集』, 1995; _____, 「论中国共产党与朝鲜义勇军的关系」, 『军事历史研究』 2000年3期, 南京政治学院, 2000; _____, 「抗战时期中国国民党援助越南与韩国独立运动的比较研究」, 『复旦学报(社会科学版)』 2003年1期,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한중이 공동으로 항전하였던 사실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중 공동항전에 대해서는 연구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중한호조사 · 중한문화협회 등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에서부터 무장투쟁, 재정적 · 외교적 지원 등 한중 공동항전의 형태와 방법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한중 공동항전 중에서 거의 관심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중국의 CC파와 역행사에서 활동한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개된 한중 공동항전의 한 사례,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중국의 CC파와 역행사에서 활동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일전쟁에 대해 한중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언급하고, 한국독립운동세력이 CC파 및 역행사와 연계하여 활동한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일전쟁 전 중국의 지원과 한인의 첩보활동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대공황은 1930년 봄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고, 농촌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대외팽창정책을 추진해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우선 일본인들을 滿洲로 집단 이주시켜 개발하도록 했으며, 1931년에는 이들을 내세워 동북지역 침공을 단행한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 토벌에 힘을 쏟던 장개석은 일본 東北軍에게 저항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약 4개월 후 중국 동북은 일본에게 함락당하고 말았다.

다음해 1월 28일 일본이 만주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상해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제19로군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1·28 上海事變이다. 그러나 19로군이 패하면서 일본의 대륙 침략은 가속화되었다. 일본은 상해 虹口公園에서 ‘天長節’ 축하대회와 淞滬戰爭 승리기념대회를 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중국인들은 더욱 분노했고, 일제의 병탄 후 중국으로 망명해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세력들 역시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러한 위기감은 결국 1932년 4월 29일 尹奉吉 의거로 표출되었다.

중국인들은 이때부터 한국독립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윤봉길 의거 이후 민간단체적인 지원은 점차 중국국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었다.³⁾ 장개석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국민당의 비밀기관이 전담하도록 했다. 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의 비밀기관 가운데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각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國民黨 中央組織部 계열의 CC파는 金九가 이끌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국민정부 軍事委員會의 三民主義力行社가 金元鳳(김약산, 중국명 陳國斌)이 이끌고 있던 義烈團에 대한 지원을 책임졌다.

复旦大学, 2003; _____, 「论二战后中国国民政府的朝鲜半岛政策」, 『复旦学报(社会科学版)』2006年3期, 复旦大学, 2006;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第2期, 中國抗日戰爭史學會, 1994; 射俊美, 「金九與中國國民黨交往述論」, 『韓國研究論叢』15, 復旦大學 韓國研究中心, 2007.

3) 胡春惠 著 · 辛勝夏 譯, 『中國인의 韓國獨立運動』, 단대출판부, 1987, 47쪽.

CC파는 중국국민당의 핵심세력인 陳果夫(Chen Guofu)와 陳立夫(Chen Lifu) 형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기관이다. 陳其美와 蔣介石은 의형제 관계였고, 진립부·진과부 두 형제도 장개석과 매우 가까운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1926년 이후 국민당조직 내에서 우세한 지위를 장악하였고, CC파라고 하는 中央俱樂部(Central Club)를 조직하였다.⁴⁾ 이 비밀정치결사가 조직된 것은 남경정부 수립 석 달 뒤인 1927년 7월의 일이었다.⁵⁾ CC는 진과부·진립부 형제를 가리키는 Chen Chen의 약자로도 알려져 있다.⁶⁾

장개석은 윤봉길 의거 이후 한인들을 위한 군관학교 설립과 한인장교 양성을 승인하였다. 한인특별반의 정식 명칭은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第2總隊 第4大隊 육군군관훈련반 제17대’로,⁷⁾ CC파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했다. 이 외에도 장개석은 CC파를 통해 비밀리에 별도 액수의 기밀활동비를 김구에게 지원함으로써 이것을 이용해 革命同志를 구제하는 임시 경비로 쓰거나, 또는 비밀리에 사람을 戰區 혹은 한국으로 파견시키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⁸⁾

CC파가 김구 계열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게 된 것은 진기미 등과 한국독립운동인사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1911년 武昌起義의 소식이 알려지자 신규식과 박찬익 등은 중국 인사들과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新亞同濟社를 결성하였다. 당시 신아동계사에는 중국의 주요 혁명과 인사 宋教仁·胡漢民·戴季陶·진과부 등 30여 명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혁명과 인사들이 국민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서 한국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었던 것이다. 진기미는 ‘첫째, 한국독립운동인물 김구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일본인의 추적을 피한다. 둘째, 김구 계열 간부인재의 배양을 돕는다. 셋째, 김구를 위수로 하는 한국임시정부에 경비를 원조한다’는 세 가지를 원칙으로 김구 계열을 지원하였다.⁹⁾

蕭鍾이 진기미와 진과부를 도와 실질적으로 김구 측 지원을 맡았다. 윤봉길 의거 이후 褚輔成에게 부탁하여 그의 고향집으로 김구를 피신하도록 주선한 사람 역시 소쟁이었다. 浙江省 黨部の 主任委員을 지낸 소쟁은 자신이 김구를 만나 저보성의 집을 자주 드나들 경우 김구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독일에서 함께 유학했던 貢沛誠으로 하여금 김구와 접촉하게 하였다.¹⁰⁾ 진과부·소쟁·저보성 등의 보호 하에 김구 측에서도 박찬익을 진과부의 중앙조직부 직원으로 파견해 김구·이동녕과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했다.¹¹⁾

그러나 김구가 CC파의 일방적인 지원만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김구는 1932년 국민당 중앙조직부를 위하여 일본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비밀 첩보활동을 맡겠다고 자원하였다. 국민당은 김구의 뜻을 받아들여 CC파

4) 範少方, 『二陳和CC』, 河南人民出版社, 1993, 113쪽.

5) 波多野乾一, 『中國國民黨通史』, 大東出版社, 1943, 463~466.

6) 蕭鍾, 『中國國民黨과 金九』,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박영사, 1983, 150~151쪽.

7) 韓相禱, 『金九의 韓人軍官學校(1934~35) 운영과 그 입교생 :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의 계열화과정과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58, 한국사연구회, 1987, 91쪽.

8) 「中央組織部 李永新處長至張壽賢函」, 1945년 8월 10일자, 黨史會 藏(胡春惠 著 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105쪽).

9) 蕭鍾, 「中國協助韓國光復之回憶」, 『傳記文學』 第44卷5期~第45卷6期(林能士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 14, 1997년, 203쪽).

10) 蕭鍾, 『中國國民黨과 金九』,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박영사, 1983, 150~151쪽.

11) 胡春惠 著, 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55쪽.

첩보활동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남경에서 공급하는 전용전화를 김구 측에 고정시키도록 지시했다. 김구는 CC파와의 이러한 특무활동 관계로 인해 중국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과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었으며, 국민당은 이후에도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의 최대 지지자로 자리하였다.¹²⁾

국민정부는 김구 계열뿐만 아니라 의열단의 김원봉 역시 함께 지원하고 있었다. 의열단에 대한 지원은 삼민주의역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932년 5월 何應欽의 비서 劉健群이 장개석에게 무슬리니의 黑衫黨, 褐衫黨과 같은 소위 ‘남의사(구성원들이 남색 옷을 입고 있어 사회에서의 반향이 컸다)’의 설립을 건의했다. 당시 공산당 세력의 확대와 지방군벌의 수립, 국민당 내에 있는 파쟁 등등의 대내적 사정으로 비밀결사 조직의 필요를 통감하고 있던 장개석은 설립안에 크게 동의했다. 이 당시 장개석은 국민당 대내외적 난국을 切抜하기 위한 유력한 정치적 권력기관의 설립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행사라는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명분에서 조직명을 中華民族復興社라 고치고, 간칭으로 復興社라 하였다.¹³⁾ 장개석 본인이 직접 사장직을 맡았으며, 장개석으로부터 경제적 원조와 지도를 받았다. 강령으로는 ‘중화민국의 危亡을 만회하고, 삼민주의를 역행하며, 국민혁명의 완성을 기할 것’을 채택하였다. 또한 ‘허위의 민주집권제를 방기’하고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해 하등의 의무를 가지지 않으나,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 절대적 복종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조직원칙으로 삼았다.¹⁴⁾ 역행사는 장개석의 지도하에 극단적 민족주의, 장개석 숭배, 사회군사화의 표방,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敵視를 강조하였다.¹⁵⁾

역행사는 조직 직후부터 남경과 상해를 시작으로 각 중요 도시에 빠르게 설립되었고, 1930년대 중국의 유력한 한 계파로서 군대 내 정치훈련을 조종하고, 각지의 보안대 내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역행사는 하부에 조직 · 선전 · 훈련 · 특무 네 개의 처(추후에 군사와 총무 양 처가 증설됨)를 두고, 國民政府軍事委員會調查統計局(이하 군통)을 장악하였다. 군통 특무 2처장에는 黃埔軍官學校(이하 황포) 6기 출신인 戴笠이,¹⁶⁾ 부처장에는 鄭介民이 임명되었다. 황포 졸업생 약 삼천 명이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포 졸업생 연락조직(黃埔同學連絡小組)이 특무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역행사와 김원봉의 관계 역시 황포를 통해 시작되었다. 1919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열단은 1920년대 중기 의열투쟁을 전개하며 투쟁역량 소모와 한계를 자각하고 군관학교 입학으로 투쟁노선을 전환해 단원들을 군사간부로 양성하고자 했다. 이후 孫斗煥의 추천으로 의열단원들의 황포군관학교 입교가 실현되었다. 손두환은 廣州에서 한국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留粵韓國革命同志會를 조직하고 회장직을 역임했던 인물로 1926년 초 의열단장 김원봉과 함께 황포군관학교 교장인 장개석을 만나 의열단원의 중국 군관학교 입교를 허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¹⁷⁾

김원봉은 역행사가 조직되자 1932년 3월 8일, 황포군관학교 제4기 동창인 역행사의 책임서기 藤傑과 연

12) 蕭靜, 「韓國光復運動之鱗爪」, 『中央日報』 1953년 8월 25일자(胡春惠 著, 辛勝夏 譯, 『中國인의 韓國獨立運動』, 55쪽).

13) 본문에서는 조직 당시의 명칭인 ‘삼민주의역행사’의 간칭인 역행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14) 朝川錄銳 編, 『北支!!난징事情』, 天津出版社, 1938, 198쪽.

15) 林能士,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國立政治大學 歷史學報』 14, 1997, 201쪽.

16) 위와 같음.

17) 「第四期同學姓名籍貫表」, 『黃埔軍校史料』, 廣東革命歷史博物館, 1982, 553~587쪽.

락해 의열단의 책임자 명의로¹⁸⁾ 〈중한합작에 관한 건의〉, 〈조선혁명계획서〉 등을 건넸다. 이 문서들은 등걸을 통해 장개석에게 전달되었다. 김원봉은 문서에서 반만항일을 위한 한중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¹⁹⁾

김원봉의 서한을 받은 장개석은 역행사 간부 및 황포군관학교 동창회 간부에 지시를 내려 의열단장 김원봉과 연락하도록 했다.²⁰⁾ 그는 역행사 연구반에게 김원봉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게 한 후,²¹⁾ 김원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승인하였다. 장개석은 “위만주국을 교란하고, 일본과 위만주국의 공방을 유발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면 조선독립혁명운동에 용이하다”²²⁾는 말로 김원봉에 대한 지원과 연계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김원봉을 지원하는 일은 역행사의 民族運動委員會가 책임졌다. 민족운동위원회는 장개석이 孫文主義의 장기혁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접 약소민족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위원으로는 간국훈, 桂永清, 任覺五 葉維, 정개민 등을 선출하고, 역행사의 후보간사 겸 혁명청년동지회의 상임간사이자 조직처장인 간국훈을 주임위원으로 삼았다.²³⁾ 주요업무는 중국 주변의 피압박 민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선·대만·베트남·인도 등이 지원 대상에 속했다. 장개석은 위원회에 매달 고정 활동비용을 주고 이를 통해 약소국을 지원하도록 했다.²⁴⁾ 김원봉에게도 대일전선준비비의 명분으로 매월 삼천 원이 지원되었고, 김원봉 계열의 청년들을 훈련시켜 간부로 양성하고자 했다.

장개석이 직접 한인들을 훈련시켜 군사 간부로 양성하고자 한 것은 반만투쟁에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장개석은 이미 일본의 만주침공 이래 간부훈련반 제6대를 창설해 만주국의 독립과 환수에 효과적인 반일공작을 위한 정책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침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자, ‘한인 청년들을 제일전선의 투사로서 이용하는 것이 반만투쟁에 가장 효과적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²⁵⁾ 직접 한인 청년들을 군사 간부로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민족운동위원회는 김원봉을 지원해 湯山の 한 사찰에서 비밀리에 간부훈련반을 조직하고 1기생으로 한인 학생 26명을 모집해 훈련을 실시하였다.²⁶⁾ 군사교육의 목적은 군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이들을 수시로 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훈련생들은 군사지식 외 정보, 폭탄과 돌격성기능을 훈련 받았다.²⁷⁾

1933년 3월 남경 탕산훈련반 한인학생들의 첫 졸업식이 있었다. 김원봉은 이 당시 의열단의 공작목표를

18) 干國勳, 「朝鮮義烈團員의 軍事教育(1932~1936) - 中國 國民黨政府의 韓國獨立運動」, 『軍事史研究總書』 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82, 138쪽.

19) 金正柱 編, 『조선통치사료』 10, 한국사료연구소, 1971, 705쪽.

20) 「義烈團及金九等ノ行動」,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8~7751쪽.

21) 干國勳, 『三民主義力行社與民族復興運動』, 干答答, 1986, 55~56쪽.

22) 「李活 訊問調查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0(義烈鬭爭 3)에 간부학교 입학부터 교육내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3) 干國勳, 「朝鮮義烈團員의 軍事教育(1932~1936) - 中國 國民黨政府의 韓國獨立運動」, 『軍事史研究總書』 5, 138쪽.

24) 干國勳, 『三民主義力行社與民族復興運動』, 54~55쪽.

25) 「義烈團及金九等ノ行動」,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8~7751쪽.

26) 위와 같음.

27)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2期, 80쪽.

‘反日’과 ‘倒滿’의 두 가지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졸업생들을 상해 · 천진 · 북경 · 동북지역은 물론 조선에까지 파견하였다.²⁸⁾ 의열단이 주장한 세부 원칙은 1. 일본과 만주국 요원에 대한 암살 진행 2. 동북지역 항일단체에 대한 제후와 지원 3. 조선과 동북지역 인민의 반일정신 고취 4. 위폐를 발행해 위만주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림 5. 기타 첩보첩보활동에 종사 한다는 것이었다.²⁹⁾

그러나 1932년 8월 개교 이후 경비문제로 인해 간부 간 의견 충돌로 감정이 악화되면서 1933년 말 졸업과 동시에 한인훈련생들은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다. 이에 安光泉 · 韓偉健 등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일부는 馮玉祥의 기병에 참가하기 위해 북경으로 떠나게 되었다. 기타 조선으로부터 온 학생들도 귀향하거나 혹은 중국 측으로부터 고용되어 반만항일투쟁을 위해 조선 · 미주 · 중국 동북에 파견되었다.³⁰⁾

이처럼 장개석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자금이 각 계열 간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면서 점차 국민당 측에서도 한국독립운동단체 간 노선의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등걸이 김원봉의 의열단을, 진과부가 김구에게 각각 통일과 단결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당의 지원 경로의 통일을 의미하였다.³¹⁾ 그러던 중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장개석은 역행사의 해체를 결정하게 되었다.

역행사는 중국 전 지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심인물만도 수백 명 이상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었다. 장개석은 전국의 역행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원의 비밀비를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장개석이 양 결사대의 해산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일항전의 개시 때문이었다. 西安事變 후 대일항전을 공동 목적으로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이에 양당의 밀담에서 공산당이 토지분배정책과 자본가의 재산몰수를 중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당 역시 비밀결사를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이 “제2차 대일항전의 중대시기에 비밀결사가 존재하는 것은 國共兩黨提携合作抗日戰의 전도를 위협하게 한다”고 강경히 주장하였기 때문에 두 단체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³²⁾

1938년 공식적으로 역행사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역행사는 三民主義青年團을 통해 인사 · 조직의 승계를 이룸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유지하며 활동하였고,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당의 지원은 여전히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국민당 내에서 점차 반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원봉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요인들이 늘어났다. 의열단원 중 공산당원이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의 화북이동이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國民黨祕書長 겸 中央調查統計局長으로서 김구 계열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고 있던 朱家驊가 장

28) 鄧元忠, 『三民主義力行士史』, 實踐出版社, 1984, 344쪽.

29) 胡春惠 著, 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50쪽.

30) 「義烈團及金九等ノ行動」,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8~7751쪽.

31) 김구와 김원봉은 종래의 수배에 이르는 경비를 국민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이전에 비해 재정적으로 매우 윤택하였다(「治安狀況(昭和 12年) 第26報-第43報」, 『國外情報-上海情報』, 1937년 9월 14일자). 그러나 장개석으로부터 반만활동을 위해 지원받고 있던 실행자금은 각 계열 간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원자금을 둘러싼 문제가 독립운동세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운동자금을 원조 받는 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천진일본총영사의 외무대신 앞 보고, 「不逞鮮人金元鳳の動靜」, 1934년 2월 22일자). 국민당 측에서도 한국독립운동단체 간 노선의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등걸이 김원봉의 의열단을, 진과부가 김구에게 각각 통일과 단결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당의 지원경로의 통일을 의미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장개석은 方覺慧에게 양 방면에 대한 통일 협조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藤從, 「三民主義力行士援助韓國獨立運動之經過」, 百益印刷事業有限公司, 1980, 12~14쪽).

32) 「蔣介石, 禦用テロ機關 籃衣社, C·C團解散」, 『東京日日新聞』, 1938년 2월 22일자.

개석에게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중심의 지원을 주장했고, 1940년 장개석도 이를 승인하였다.³³⁾ 결국 1942년 김원봉이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참여를 선언하기 전까지 김원봉 계열에 대한 지원과 연계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Ⅲ. 중일전쟁 후 한중의 대응과 연대 모색

1. 한국 독립운동 진영의 대응과 항전 노선

1937년 7월 7일 일본이 북경 교외의 노구교에서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소위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중일전쟁은 행방불명된 일본군을 찾겠다며 수색을 요구하던 일본군이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군이 중국군을 공격하자 중국군이 전면전으로 대응한 것이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던 일이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이 1910년 한반도를 차지한 후 계속해서 세력팽창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이러한 예견 하에 독립군을 양성하였다가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중국과 함께 일본과 대일항전을 전개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예견한 대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였다. 1931년 9월에 동북을 침략하였고, 이에 이어 중국대륙을 침략한 것이다.

당시 중국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좌우익 양대 진영을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좌익진영을 이루며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좌우익 진영은 모두 중일전쟁의 발발을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고, 각각 이에 대응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군사활동을 계획·추진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일전쟁은 대일독립전쟁을 개시하여 雪恥報國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하면서, 군사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군사위원회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설립하였다. 1937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柳東說·李青天·李復源·玄益哲·安敬根·金學奎 등 6명을 위원으로 한 군사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다.³⁴⁾ 위원 6명 중 안경근을 제외한 5명은 일본육군사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등을 졸업하고 동북에서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여 대일항전을 전개했던 군사인재들이었다. 이러한 군사인재들로 하여금 군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33) 林能士, 『國民黨派系政治與韓國獨立運動』, 『國立政治大學 歷史學報』 14, 203쪽.

34) 『임시정부공보』, 대한민국 19년 7월 16일(제62호).

군사위원회는 군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군사활동은 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대일항전을 전개한다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고, 구체적 방안으로 “速成군관학교를 설립하여 최단 기간 내에 우선 1기로 초급장교 2백 명을 양성하고, 기본 군대로 1개 연대를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³⁵⁾ 이러한 계획에 대해 임시정부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초급장교 양성과 1개 연대 규모의 군대를 편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37만원을 책정한 것이다.³⁶⁾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일본군이 1937년 8월 상해를 점령한데 이어 남경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되자 임시정부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일본군의 점령지역이 대륙 깊숙이 확대됨에 따라 진강 · 장사 · 광주 · 유주 · 기강 등지를 거쳐 1940년 9월 重慶에 정착할 때까지 피난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군관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고, 책정된 군사사업비도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피난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것이다.³⁷⁾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 3당과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이 연합을 이룬 것이다. 당시 민족주의 계열은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국민당, 조소앙을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당, 이청천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당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3당은 중국이 일본과 전면적 전쟁에 돌입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며 연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단체들도 연합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의 대한인국민회, 대한인단합회, 대한부인구제회, 동지회, 대한인애국단의 6개 단체와도 연합을 모색하여 1937년 8월 17일 9개 단체가 연합을 이룬 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를 결성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 및 단체들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란 연합체를 결성한 것은 중일전쟁 발발이 그 계기였다. 중일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중할 필요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하면서 발표한 〈韓國光復運動團體對中日戰局宣言〉에 잘 나타나 있다. “중일전쟁은 우리 한 중민족의 생사존망 최후의 문제”, “우리한국민족은 群起하여 중국을 위해 항일전선에 참가함”, “중한 양민족은 연합하여 왜적을 섬멸 응징할 것”을 연합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민족주의 계열의 세력은 연합을 이루어 중국과 함께 공동항전을 전개하고자 했다.

중일전쟁 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은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것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임시정부를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과 3당은 일본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되면서, 항주 · 진강 · 장사 · 광주 · 유주 · 기강 등지로 옮겨 다니다가 1940년 9월 중경에 정착하였다. 중경은 당시 중국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였고, 비교적 전란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다. 전란으로부터 안정적인 곳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한국광복군의 창설이었다.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면서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 것은 중국과 일본 간에 전면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군과 함께 항일

35) 大韓民國國會圖書館 編,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大韓公論社, 1974, 746쪽.

36) 국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90, 144~145쪽.

37) 大韓民國國會圖書館 編,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247쪽.

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조선민족혁명당³⁸⁾ 역시 중일전쟁 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시체제 마련에 들어갔다. 民族革命黨은 중일전쟁을 ‘중화민국 역사 뿐 아니라 전 동방 민족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대한 관건’으로 평가하였다. 객관적으로 현재 우리의 역량이 비록 부족하나 우방국과의 연합을 통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우방국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항전 승리가 곧바로 조선민족혁명의 성공이며, 반대로 중국의 항전 실패는 곧바로 조선혁명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³⁹⁾ 이에 중국의 항전을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대일 전면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이다.

대일전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좌익진영의 연합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정견과 당파관념을 버리고 하나의 기치 아래 혁명역량을 집중·강화시키기로 했다. “적 앞에 서있는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지 못하겠느냐”⁴⁰⁾는 반문을 통해서 모든 독립운동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켜 중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중국의 전면항전이 시작되면서 대일항전의 노선으로 정했던 한중연합의 결성과 효과적인 항전에 대비한 전시체제 마련을 위한 좌익진영의 통일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11월 연합에 찬동한 민족혁명당·朝鮮民族解放運動者同盟·朝鮮革命者聯盟의 대표들이 남경에 모여 통일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朝鮮民族戰線聯盟(이하 민족전선) 결성에 합의하였다. 유자명은 민족전선의 기관지인 《朝鮮民族戰線》에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성과과정〉을 싣고 민족전선의 창립 배경에 대해 “민족의 총 단결을 강조하게 된 역사적 조건의 변화 때문이었다.”⁴¹⁾고 설명했다. 민족전선은 反滿항일투쟁과 같은 특무활동에 주력할 것과 중국의용군과 연합할 것 등 전체 7綱 20目的 투쟁강령을 결정했다.⁴²⁾

항전 준비는 곧 군대창설로 이어졌다.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장개석은 김원봉 측에 “……물질적, 정신적 지원, 국제 반일연합전선의 결성, 중일 전선에의 참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원봉은 조직적 항전체제 마련을 위해 1938년 성자분교 출신 한인간부들과 民族戰線聯盟의 단원들을 중심으로 朝鮮義勇隊를 조직하였다.⁴³⁾ 결성선언문에서 그는 “중국혁명이 완성되지 못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압박 착취가 더욱 심하며, 한국 민족이 해방되지 못함으로써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이 더욱 포악해졌음이 사실이다.……조선의용대의 기치를 높이 달고 중국형제들과 굳게 손잡고 최후의 일과까지 분투하자”⁴⁴⁾며 조선의용대의 창설 목적이 독립 달성을 위한 한중 공동항전에 있음을 밝혔다.

38)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미주 대한독립단 등이 자기 조직을 해체하고 남경에서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독립당과 신한독립당이 탈당하였다.

39)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7·7”을 기념하는 선언」, 1938년 7월 7일(독립기념관 소장, -004417-043).

40) 『申報』, 1937년 11월 3일자.

41) 『朝鮮民族戰線』 창간호, 1938년 4월 10일(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2, 151~152쪽).

42)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7·7”을 기념하는 선언」, 1938년 7월 7일(독립기념관 소장, -004417-043).

43) 중국 각지에서 한인 청년 83명을 선발해 中國中央軍官學校 星子分校 제6기 특별훈련반에 편입시켜 훈련반도록 했다. 성자분교는 본래 중일전쟁 발발 전 중국간부를 훈련하기 위해 설립해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3개 성의 역행사원들이 주로 훈련받던 곳이었다. 역행사 상무간사 중의 한 사람이던 康澤이 훈련반 주임으로 있었다. 성자분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한인간부들은 다음해 5월 졸업 후 武漢으로 향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박영사, 1983, 69~71쪽).

44) 조선의용대후원회, 『의용보』 제3호 로스앤젤레스, 1940. 3. 10(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2, 359~366쪽).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자 장개석은 이를 즉시 군대 조직으로 승인하였다. 다만 군은 규모가 크므로 隊로 조정하도록 하고,⁴⁵⁾ 역행사 계통의 第1廳 청장이자 정치부 비서장이던 賀衷寒에게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업무를 맡겼다.⁴⁶⁾ 조선의용대는 창설 후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 정치부 제2청 소속으로 편제 되어 중국군과 함께 전면항전에 참가하였다.⁴⁷⁾

조선의용대의 창설은 한중공동 항전을 목적으로 한만큼 중국 국민들 역시 이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조선의용대의 항전 참전은 국제중국지원의료단, 소련공군지원군의 중국지원 작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국민이 항일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⁴⁸⁾

2. 중국 진영의 대응과 한중연대 모색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장개석은 “전쟁의 시작은 중도타협을 허용치 않으며, 전 국민의 희생과 항전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廬山談話를 발표함으로써 전면 대일항전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당 군대는 항전 제1기(1937~1938 11) ‘以空間換時間’의 지구소모전략을, 항전 제2기(1938년 11~1941태평양전쟁 발발) ‘有限功勢與反擊’의 전략을 채택했다. 1937년 8월 20일 국민당군사위원회는 〈戰爭指導方案〉을 반포하고 국민의 운용은 지구전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확정지었다. 공간으로 시간을 확보한다는 이 방침은 적의 역량을 소모시켜 형세를 전환시킴으로써 최후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었다.⁴⁹⁾ 따라서 항전 초기 국민당정부는 전략적으로 상해와 남경을 포기하고 武漢으로 후퇴하였다. 이 같은 전략은 중국인들에게는 반민족적인 모습으로 매도되기도 했지만, 효과적인 항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했다.⁵⁰⁾

중국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과의 엄청난 국력 차이와 영국·미국 등의 일본에 대한 완화정책 때문에, 대일작전 상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국토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 시기에 만약 국제적인 우호인사들이 중국을 지지하고 함께 전쟁에 참가한다면 대일항전에 큰 격려가 될 것이었다.⁵¹⁾ 따라서 국민정부는 항전 개시 후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모든 국가와의 연대 활동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오랜 시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본에 저항해 온 한국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장개석은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⁵²⁾ 그것은 일본의 대륙침략이 조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46쪽.

46)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42쪽, 66쪽.

47) 조선의용대장은 김원봉이 맡았고, 제1구대장은 樸孝三으로 대원은 43명, 제2구대장은 李益星이고, 대원은 41명이었다(김영범, 『조선의용대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483쪽).

48)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시대의창, 2005, 19~20쪽.

49) 何應欽, 『八年抗戰之經過』 國家圖書館出版社, 1946, 13쪽.

50) 한상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대한민국임시정부 - 장정시기 -)』 2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93쪽.

51)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시대의창, 2005, 19쪽.

52)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 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19~20쪽.

생각한 때문이었다.

국민정부는 1940년 1월 8일 중경 『大公報』에 “중일전쟁의 기점은 조선이다. 즉 그 종점 역시 반드시 조선이 된다. 중국항전의 ‘끝’은 어디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조선이라고 답할 수 있다. 우리가 북방을 수복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동북을 수복하고자 한다면, 또 대만을 조국으로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 조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항전은 끝이 나는 것이다”는 내용의 〈爭取東亞解放〉을 실어, 중국 항전과 한국 독립 간의 불가분 관계를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한국에 대한 침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전 역시 한국이 독립되어야 비로소 끝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중일전쟁이 중국만의 전쟁이 아니며, 한국의 독립운동이 한국만의 일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중 간 연대의 개연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국민정부 立法院長이자 손문의 아들인 孫科 역시 같은 이유에서 한국의 독립이 곧 일본의 침략 야심의 종결임을 피력한 바 있다.⁵³⁾

이러한 이유에서 장개석은 중일전쟁 발발 3일 만인 7월 10일 한국독립운동세력의 지도자들을 전격적으로 국민당정부 하기훈련단이 있는 江西省 廬山으로 초대해 한·중연합 항일전선의 구축 및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⁵⁴⁾

한중 공동투쟁을 제의한 장개석은 1941년 10월 중국군사위원회에 재중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원조방안을 제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42년 7월 20일 중국국민당 中央常務委員會 제206차 회의에서 한국원조문제가 논의되었고, 軍事委員會參謀總長 何應欽, 國防最高委員會祕書長 王寵惠, 國民黨中央組織部長 朱家驊, 國民黨中央黨部祕書長 吳鐵城, 진과부 등 7명이 참석해 한국원조정책의 조정과 강화를 연구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회의를 더 거친 후 오철성은 장개석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였다. 장개석은 한국에 대한 지원방안 제출을 지시하였고, 하응흠, 주가화 등과 상의해 〈扶助朝鮮復國運動指導方案〉을 결정하였다. 이는 중국 측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방안이자 한중연합의 추진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打入敵寇軍隊, 煽動韓籍士兵
- 2 與韓國本部及旅外韓僑設法聯絡
- 3 招致韓籍有志青年, 予以訓練
- 4 經常在韓國本部及敵寇軍隊中, 散播復國運動之文告⁵⁵⁾

중국의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지원형태는 주로 적군 안에 들어가 한인 병사들을 선동하고, 한국 본부

53) 손과는 동방문화협회, 국제반침략분회, 국민외교협회 등 단체가 주관한 한국문제강좌에서 장편의 연설문〈조선독립문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이 시기 우리는 마땅히 다시 한 번 한국독립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大戰 이후 한국이 반드시 독립해야만 일본 수십 년이래 동아시아를 獨霸하고 세계를 침략한 끝이 없는 야심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역사상 관찰된 결과이다(秋憲樹 編, 『(資料)韓國獨立運動』 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1, 531~536쪽).

54)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13年), 巖南堂書店, 1966, 270쪽.

55) 中國國民黨黨史 所藏, 「軍事委員會第6948號快郵代電」, 1942년 12월 27일(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上, 民族出版社, 2009, 33쪽).

및 해외 한교들과 연락하며, 한인 청년들을 모집해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또 한국과 일본군 내에 독립운동 선전문을 산포하는 일도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점령지역 내에 침투해 연락망을 구축하고, 한인 청년들을 초모해 훈련시키며, 일본군 혹은 한국군과 중국군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들이 있었다. 병력과 재정상 한국독립운동 세력과 중국의 대등한 연합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연대활동은 한국독립운동세력으로 하여금 후방에서의 선전활동 지원이나 후방 병력을 훈련시켜 중국의 전면 항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한인독립운동세력의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또한 중국 내 반파시즘 세력을 주목하고, 피압박민족과의 연대를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한중연대를 논의하기 위해 毛澤東, 周恩來, 朱德 등 23명이 출석한 政治局擴大會議을 陝西省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전력이 강한 상황에서 〈진민족의 전면 항전 노선과 지구전의 전략 총방침〉을 정식으로 확정지었다. 뿐만 아니라 〈中國共產黨抗日救國十大綱領〉을 발표해 영토주권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반침략동맹을 맺어 항일 군사활동을 서로 돕자고 제안하였으며, 조선·대만 및 일본 국내의 농민·노동자들과 연합해 일본에 저항할 것을 강조하였다.⁵⁶⁾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즉시 “민족자결·민족독립·공동항일의 슬로건 아래 조선인·蒙古人·回族을 무장시켜, 대일항전에 참가시키라”고 지시하였다.⁵⁷⁾ 1938년 11월 제6기 擴大6中全會에서 채택된 〈신단계를 논함〉에서 역시 “중일 양대 민족의 군인·대중과 한국, 대만 등의 피압박민족이 공동의 반침략 통일전선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압박민족과의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처럼 중일전쟁 이후 본격화 된 한중 공동투쟁과 중국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은 오랜 시간 다방면에서 전개한 한국독립운동의 성과를 인정한 결과인 동시에 중국 자신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⁵⁸⁾

IV. 중일전쟁 후 공동 첩보활동 추진

1. CC파 계열과의 적 후방 교란활동

한국국민당은 1937년 중일전쟁을 중화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알리는 서막이자, 한국민족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중국 측과의 조속한 연계를 맺기 위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우선 김구는 중국국민당 조직부장 주가화에게 편지를 보내 한중이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다.⁵⁹⁾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독립운동 진영은 일본군에게 군사적으로 결정적 타격

56) 軍事歷史研究部 編, 『中國 抗日戰爭史』中, 解放軍出版社, 1993, 57쪽.

57) 日本國際問題研究所 中國分會, 『中國共產黨史資料集』8, 485쪽(한상도, 『한국독립운동사』24, 195쪽).

58) 양우조·최선화 지음, 김현주 정리, 『제시의 일기』, 혜음, 1998, 176쪽.

을 가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김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중 연대활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대방법을 제시하였다. 김구는 “항전의 방법도 무력항쟁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 중국방면에서도 한인의 항전역량을 주목하고 긴밀한 연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⁰⁾

한국국민당은 당시에 처한 현실로 볼 때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적 후방 교란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관내와 동북, 국내의 교통로가 막히므로 최소한도의 후방 교란작전을 세워 우선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광복을 앞당기기 위해 전면적인 국권회복운동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다수의 유능한 인원을 적 후방에 침투시켜 군사시설에 대한 파괴 등 중국항전 당국과 공동항전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⁶¹⁾ 그 방법은 동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을 동원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 그리고 개인 혹은 소규모 단체에 의한 첩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⁶²⁾ 김구는 1937년 12월 당원들을 상해 부근에 집결시켜, 제1분대는 동북, 제2분대는 조선, 제3분대는 일본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보기관은 “이들의 임무가 주요 일본 침략기관의 폭파 및 침략원흉의 암살 등을 결행하고, 치안교란을 통해 이를 동양의 혁명으로 이끌어 한국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고 분석하였다.⁶³⁾

적 후방지역 가운데에서도 화북지역은 가장 중요한 작전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일본이 중국 관내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복해야 할 지역이 바로 화북이기 때문이었다. 또 중국에게는 동북을 수복해야 한국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는데, 동북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화북의 항전태세를 공고히 해야 했다.⁶⁴⁾ 장개석의 冀東, 冀察 政權에 대한 압박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후방 특무활동에 있어서 역시 화북전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김구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고 있던 주가화를 찾아가 화북지역 적군에 끌려온 韓人 사병들의 탈출을 적극 유도하고 훈련시켜 항전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주가화가 이에 동의하였고, 이 내용을 장개석에게 보내 비준을 청하였다.⁶⁵⁾ 이후 김구는 김원봉과 함께 휘하의 공작대를 保定과 천진으로 파견해 宋哲元 29군의 항일행렬에 참가시키고 북경과 천진 당국의 일본에 대한 정보공작에 협조하도록 했다.⁶⁶⁾

또한 김구는 화북지역의 시국혼란을 이용해 후방 교란작전을 수행할 인물을 탐색하며, 비밀공작을 계획하였다. 그는 우선 安敬根과 嚴恒燮에게 국민당 중앙당부의 적군의 정보 수집활동을 담당하도록 했다.⁶⁷⁾ 안경

59) 「중한 두 나라 국민당의 조속한 연계를 청하는 편지」(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136~137쪽).

60) 「한국독립과 동아평화」,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16쪽).

61) 「한국광복전선 소식」,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41쪽).

62) 「한국국민당의 전시 후방 교란계획 책략」, 1937년 7월 30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45쪽).

63) 內務省警報局保安果, 『特高外事月報』 2월호, 1938, 196쪽.

64) 趙西山, 「華北民衆은 어떻게 日寇에게 打撃을 加하였나?」,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52쪽).

65) 「朱家驊 謹啓」(『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141~142쪽).

66) 內務省警報局, 「1937年の在支不逞朝鮮人の不穩策動狀況」, 『朝鮮獨立運動』 2, 1938.

67)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2期, 10쪽.

근은 안중근의 사촌동생으로 김구 및 安恭根이 지시한 첩보활동 임무를 맡고 있었고, 엄항섭은 1935년 김구가 설립한 학생훈련소의 澄光寺 시절 훈련소를 관장하던 인물이다.⁶⁸⁾ 김구의 지시에 따라 천진에서 중국 측 군정 각 방면의 정보 수집을 수행하던 엄항섭은 천진 프랑스조계 공부국 정치부차장 러시아인 에무리아노브와 장기간 회담을 가진 후 김구와 함께 먼저 남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안경근은 金東宇, 文逸民 등과 함께 계속 천진에 남아 활동하였다.⁶⁹⁾ 이들은 국민당으로부터 매월 수천 원을 지원받아 첩보활동비로 사용하였다.⁷⁰⁾

안경근 등과 함께 CC파와 연계해 적 후방지역에서 특무활동을 전개할 인물을 물색하던 김구는 趙相淵⁷¹⁾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그를 천진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조상연을 CC파에서 추천한 것인지 김구가 선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천진파견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 받았던 것 같다. 일찍부터 CC파의 진립부·진과부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韓國國民黨青年團의 부단장을 맡는 등 김구를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를 졸업한 후 천진지역에서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했던 경험도 있어 천진 지리와 정세에 밝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8년 2월 5일경 조상연은 김구와 엄항섭으로부터 한국국민당 印支特派員으로 임명되어 일본군 기밀조사의 지시를 받고 홍콩을 경유해 천진에 잠입하였다. 이후 프랑스조계에 거처를 마련하고 韓淵, 李元一 등 십여 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일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⁷²⁾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일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⁷³⁾ 또한 천진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68)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8, 國學資料院, 1994, 471쪽.

69) 「國外情報-上海情報」, 『治安狀況(昭和 12年)』 第26報-第43報, 1937년 9월 14일.

70)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2期, 10쪽.

71) 조상연은 平安北道 定州郡 玉泉面 출생으로 중국에 건너와 中東鐵道 제6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다가 1932년 7월 박찬익의 아들 박영준과 함께 상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대련으로 떠났다. 조상연은 빠른 시간 내에 정식으로 군사교육을 받고 항일 투쟁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조상연은 남경으로 와 안휘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933년 9월 안휘중학을 중도 퇴학하였다. 이후 浙江省 杭州·嘉興 등지에서 당시 장개석의 비호 아래 중국 국민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陳果夫·陳立夫가 조직한 비밀결사 C.C파에 가담하여 군자금을 지원받아 활약하였다. 조상연의 C.C파 가담은 진과부, 진립부와 오랜 시간 교유해 오던 친구 박준영의 아버지 박찬익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찬익은 일찍이 신구식을 따라 중국에 건너와 진과부, 진립부 등 중국 국민당의 주역들과 동고동락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요인들도 박찬익을 특별한 선배로 또는 동지로 대접했다(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朴英俊 자서전)』,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45쪽). 그는 1934년 중국 국민당정부 장개석의 후원하에 중국 河南省 洛陽의 中央陸軍軍官學校 낙양분교 내에 한인특별반을 조직하자, 동년 1월 嚴恒燮의 권유로 낙양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구의 명으로 남경 중앙육군군관학교로 전학하여 1936년 7월 16일 제10기생으로 졸업하였다(『朝鮮思想事件豫審終結決定並判決 在支民族主義者の外患事件』, 『사상회보』 제20호, 1939년 9월 1일). 졸업 후 삼일 후인 19일 김구·엄항섭·車利錫 등이 주도하는 韓國國民黨 예비당원으로 입당하였고, 다시 일주일 후인 26일 엄항섭·安椿生·盧泰俊 등과 더불어 한국국민당 青年團을 결성하여 부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7월 28일 중국 국민당정부로부터 육군 소위로 임명된 그는 중앙군 제14군 제10사단에 소속되어 8월 泳縣으로 출동하여 약 1개월간 京漢線 지역에 소속되어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하였다(『南京軍官學校出身 趙相淵控訴公判 平壤覆審에서 開廷』, 『東亞日報』 1939년 11월 19일자). 그 후 1937년 8월 김구의 명으로 중국 군대를 이탈하여 그 해 9월 한국국민당 정당원으로 입당한 그는 1938년 2월 5일 김구로부터 한국국민당 印支特派員으로 임명되어 같은 달 26일 천진으로 잠입하였다. 천진에서 활동하던 그는 1938년 11월 4일 천진의 영국조계 런던 교 부근에서 천진 일본영사관 경찰에 의해 피체되어 압송되어, 다음 해 12월 순국하였다(國家報勳處,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13卷, 國家報勳處, 1996, 554~555쪽).

72) 「天津에 潛入暗躍된 朝鮮青年을 護送 金九의 部下로 蔣直系의 少尉 定州出生의 趙相淵」, 『東亞日報』 1939년 1월 29일자.

73) 「한국광복전선 소식」,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41쪽).

東北義勇軍과의 연락을 목적으로 다수의 부하를 동북에 파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⁷⁴⁾

김구와 CC파는 조상연이 천진에서 수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였다. 그는 그 동안 수집한 天津義勇隊特別班員名⁷⁵⁾ 및 천진조계 봉쇄의 형세 등을 漢口 거주 동지 등에게 타전하였다.⁷⁶⁾ 또 일본군의 작전지대, 일본 경찰의 조직과 거류민 상황 등에 관한 정보도 한구의 김구와 장개석 정권에 제공하였다.⁷⁷⁾ 이것은 조계 내의 陰家에 마련된 CC파의 단파 무전기를 통해 암호로 전송되었다.⁷⁸⁾ CC파의 무선시설을 이용해 한구로 정보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조상연의 활동이 한중 공동항전의 일환이었음은 보다 분명해진다.

조상연 외에도 CC파와 연계되어 활동하던 김구 계열 사람이 있다. 바로 樸世烈이다. 조상연은 천진 영국 조계 天樂飯店에서 비밀리에 천진 일본군의 병력 이동 상황 등의 조사를 그에게 의뢰하고자 했다.⁷⁹⁾ 이를 위해 영국조계 런던교 부근에 박세열을 만나러 갔다가 천진일본영사관 경찰에게 피체되고 말았다.⁸⁰⁾ 조상연이 박세열에게 정보 수집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아 박세열도 조상연과 같은 임무를 띠고 활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⁸¹⁾

CC파와의 연대활동은 일본 패망 때까지 계속되었다. 1945년 1월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들과 함께 중경 임시정부에 도착한 鮮于鎭 역시 CC파와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중경에 머물던 어느 날 閔麗鎬의 소개로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調查統計局(이하 中統)⁸²⁾에 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두 사람 외 김구뿐이었고, 민필호는 중앙조사통계국에게 선우진을 王一舟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그들로부터 왕일주라는 신분증명서를 받게 되었고, 신변에 위험이 있어도 절대 신분증명서를 보이면 안 된다는 당부를 받았다. 그들은 중국 내 임시정부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⁸³⁾ 독립운동가들이 중통의 첩보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이들을 도와 해방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74) 「天津에 潛入暗躍된 朝鮮青年을 護送 金九의 部下로 蔣直系의 少尉 定州出生의 趙相淵」, 『東亞日報』, 1939년 1월 29일자.

75) 일본의용대는 거류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제일로 설정하고 이를 국민들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군국주의적 성격을 띤 단체이다. 중일전쟁 발발 후 천진일본의용대 내에 한인을 대원으로 하는 특별반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일본의용대를 도와 軍의 送迎接待과 貨物運輸 등을 맡았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緊張局面으로 접어들면서 조선인특별반의 임무도 확대되어, 大和公園의 塹壕와 바리케이트 제작, 탄약과 식량의 운반 및 부상병사의 운반, 중국병사 시체 운반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이들은 일본의 천진 점령 후 일본에 협력해 활동했던 부일 혹은 친일 성향의 조직이었다 할 수 있다.

76) 「朝鮮思想事件豫審終結決定並判決 在支民族主義者の外患事件」, 『사상회보』 제20호, 1939년 9월 1일.

77) 「天津에 潛入暗躍된 朝鮮青年을 護送 金九의 部下로 蔣直系의 少尉 定州出生의 趙相淵」, 『東亞日報』, 1939년 1월 29일자.

78) 「朝鮮思想事件豫審終結決定並判決 在支民族主義者の外患事件」, 『사상회보』 제20호, 1939년 9월 1일.

79) 위와 같음.

80) 「南京軍官學校出身 趙相淵控訴公判 平壤覆審에서 開廷」, 『東亞日報』, 1939년 11월 19일자.

81) 「한국광복전선 소식」, 『韓民』(중문판) 제1기 제1호(국가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4, 41쪽).

82) CC파를 모체로 하는 중국국민당의 전국적인 특무조직으로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調查統計局的 간칭이기도 하다. 1938년 8월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그 전신은 1928년 설립된 國民黨中央組織部調查科로, 1935년 國民黨中央組織委員會黨務調查處로 확대되었고, 1937년 軍事委員會調查統計局(軍通)第一處로 편입되었다. 진과부, 진립부의 직접 통제 하에 있었으며, CC파의 중요 기지였다.

83) 선우진 저, 최기영 편,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푸른역사, 2009. 326쪽.

2. 역행사 계열과의 정보수집 활동

중일전쟁 이후 비록 역행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기는 했으나, 역행사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역행사 세력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계열을 초월한 한중공동의 첩보활동은 계속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장개석은 한인 독립운동세력을 역행사에 가입시켜 함께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항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김원봉 역시 공적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대원들을 직접 중국 역행사에 가입시켜 활동하게 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이에 金殿榮, 金承志를 직접 각지 국민당 시·당부 내에 파견해 중국인 역행사원과 함께 대일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이들은 주로 일본군의 정보 수집 및 파괴임무를 수행하였다.⁸⁴⁾

1938년 한중 공동항전 수행을 목표로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조직 후 중국군과 직접 대일항전에 참전하며 많은 전적을 세웠다. 조선의용대는 중국군의 항일전선을 따라 무한에서 桂林, 중경으로 이동하며 활동했다. 중국 역행사 측은 다액의 자금을 조선의용대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⁸⁵⁾ 조선의용대원이 주로 담당했던 것은 정치훈련 방면, 군중의 정보공작, 적후에서의 첩보활동 등이다.⁸⁶⁾ 구체적으로는 일본군의 정보수집, 적 정세 자료의 번역, 일본전쟁포로의 관리와 훈련, 일본군 내 한인에 대한 선동과 탈출, 일본군 병사 심리작전 진행, 중국군대에 협조해 선전활동 및 유격전쟁 참가 등이다.⁸⁷⁾ 조선의용대는 중국군 6개 전구, 남북 13개省 戰地에 배속되어 대원 다수가 관내의 천진, 북경, 상해 및 대만으로 파견되었으며, 동북에도 파견되어 국경지역의 후방 교란작전을 펼쳤다.⁸⁸⁾

중국 역행사원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일본에 의해 곧바로 탐지되었다. 일본은 ‘중일전쟁 후 김원봉이 민족혁명당 계열 소속청년들을 화북지역에 파견했다’고 보고하였다.⁸⁹⁾ 실제로 당시 이들은 중국 정치부공작원과 정보 수집 및 파괴공작을 진행하였고, 이 밖에 적진의 한인병사를 초모하는 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⁹⁰⁾ 이에 일본은 관내지역과 동북지역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한중 역행사원들이 대거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던 화북지역에 대한 취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천진은 북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상해, 동북 방면과의 교통 요충지에 해당해 요인들이 빈번히 왕래하며 활동을 전개하던 지역이다.⁹¹⁾ 또 8국 조계 내에서의 치외법권으로 정치적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워 각국 첩보활동의 본거지로 평가되었다. 이 때문에 역행사의 지방지부 역시 일찍이 천진에 설치되었다. 한중 역행사원들이 주로 선박을 이용해 천진으로 잠입했기 때문에 천진과 일본 및 인천을 운항하는 정기 일본선박에 대한 일본의 감시와 조사가 강화되었다. 천진과 인천을 운항하는 정기선박에 대해서도 塘沽에서 출항 전 충분한 검색을 실행하고 필요시에는 일본 경찰관을 승선시키도록 하였다.⁹²⁾

84) 「義烈團及丙寅義勇隊ノ復讐狀況」,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2~7743쪽.

85) 內務省警保局, 「最近の在支不逞朝鮮人(韓國獨立運動家)策動狀況」, 1941년 12월.

8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71~72쪽.

87)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 上, 30~31쪽.

88) 廉仁鎬, 『朝鮮義勇軍研究』, 국민대박사학위논문, 1994, 41~42쪽.

89) 「上海情報」, 『治安狀況(昭和 12年)』 第26報~第43報, 1937년 10월 29일.

90)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82쪽.

91) 朝鮮總督府警察局, 『高等警察報』 第2號, 巖南堂, 1962, 35쪽.

화북이 일본 점령구로 편입되고, 역행사원들에 대한 일본의 취체가 강화되자 종래 천진의 華街를 근거로 활동하던 역행사원들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영·프 양 조계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타국 조계에 대한 취체권이 없던 일본은 프랑스조계 공부국에 조계 내 역행사의 ‘철저적 취체’를 요청하였다.⁹³⁾ 이처럼 화북이 일본에 함락 당하고 조계가 회수 되는 등의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행사 파견 및 이들과의 연대활동은 오히려 확대·강화되었다.

李雲邦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이 북경에 파견되어 본부를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후 다시 40명의 역행사원이 북상해 기차, 기동정부 요인의 동정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⁹⁴⁾ 김원봉 역시 열 명의 대원들을 선발해 화북에 파견하고 일본군의 陣容, 編成, 實力 등을 조사하게 한 후 내용을 중국 역행사 측에 제공하였다.⁹⁵⁾

이들의 활동은 중국 각 계의 찬사를 받았다. 등걸이 기억하기에 “조선의용대의 두려움 없는 공작정신은……사람으로 하여금 경탄하고 존경하게 만들었다” 또 “이들은 적 후방 혹은 전구 어느 곳에 파견되어도 마다치 않았으며, 어떠한 성격의 임무를 맡더라도 마다치 않았다. 다만 그들의 임무는 모두 극도로 힘든 일 이었고, 대우는 매우 열악했으며, 임무는 중요했다……. 그러나 그들의 공작 성적은 매우 양호했다”⁹⁶⁾고 이들의 독립에 대한 열의와 특무활동의 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김구 역시 역행사와 함께 활동하였다. 역행사와 조선의용대원과의 연대활동이 주로 화북지역에서 이루어진 반면 華南지역에서는 한국국민당 계열과의 연대활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대일항전이 제일의 목적이던 상황에서 노선과 계열을 초월한 광범위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중일전쟁 발발 후 한국국민당은 특무대를 대신할 한국국민당청년단을 조직하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7월 중순부터 청년들을 화북 및 상해에 파견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일전쟁 당시 한국국민당은 본부를 남경에 두고 조사·행동·특무·교통·연락부를 상해와 화북 등지에 설치하고, 당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였다. 김구는 한국국민당원 金英浩 이하 6명을 화북에 파견해 북경시장 秦德純의 보호 하에 中韓互助社의 부활 및 일본 측의 군사, 기타 일반정보의 수집에 힘쓰게 하였다. 이들은 ‘한족항일동지회지행위원회’의 명의로 <화북 거주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작성, 산포하기도 했다. 김구로부터 일본인 및 중국인의 암살과 일본군사시설의 파괴 등 화북에서 ‘후방교란’을 지시 받은 한국국민당원 李元益도 다섯 명의 중국 역행사원과 함께 천진 영국 조계 내 일본 병기공장과 군수품 저장창고 파괴의 사전공작으로 그 장소와 수량을 조사하는 등 일본군사시설의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⁹⁷⁾

중국 역행사와 함께 특무활동에 종사하는 한국국민당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또 다른 지역은 바로 상해였다. 일본의 정보 문서에 의하면 ‘10월 12일 중일전쟁 발발 후 한국국민당이 당원들을 상해에 파

92) 「滿洲國皇帝禦度日警戒ニ對スル署長訓達」,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第2, 天津總領事館, 1934.

93) 「抗日分子 取締 佛工部局에 嚴重勸告 天津의 我當局強硬決意表明」, 『東亞日報』1938년 5월 10일자.

94) 「北平天津地方에 藍衣社員이 潛入 反日테로 行爲形勢」, 『每日申報』1937년 4월 8일자.

95) 內務省警保局, 「최근의 재지 불령조선인(한국독립운동가) 책상상황」, 1941년 12월.

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71~72쪽.

97) 東亞局, 『外務省執務報告』, 東亞局, 1938, 368쪽.

견해 프랑스조계 高山路에 지부를 두고 상점으로 위장해 활동하였다. 이들은 남경정부 군사위원회 특무대의 대립과 연락하고 있었다. 또한 역행사 상해지사와도 연락을 유지하였다. 특히 조사부원은 虹口 · 楊樹浦 · 吳淞 · 江漢羅店 · 楊行 · 劉行의 전구에 들어가 일본군의 진용 · 편성 · 실력 등을 조사하고 무기 · 탄약 · 식량 · 비행기 · 대포의 저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중국군 비행기의 야간출동 성과는 이에 기인한다⁹⁸⁾ 한국국민당원들의 정보수집 활동의 높은 성과를 인정하였다.

한국국민당에서 파견한 한인 역행사원들의 일본군 정보수집공작의 성과가 뛰어나자 국민당정부는 정보인원들의 훈련비용과 활동경비 일체 그리고 전용통신대(電臺)를 김구 측에 제공하였다. 소쟁과 당시 中統局공작을 주도하던 徐恩曾는 김구에게 전용통신대와 인원을 제공해 주었다. 전용통신대의 중국 측 요원들은 전신 업무를 훈련 받은 인물들로 김구 계열의 특무활동을 돕기 위해 김구 측에 직접 파견되어 활동했다.⁹⁹⁾

한편, 1943년 일본 관동군 密山헌병대에 재직하던 趙璘植¹⁰⁰⁾은 일본군을 탈출해 역행사에 가입한 뒤 山西省 일대에서 직접 항일전에 참여하는 등¹⁰¹⁾ 이들의 활동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V. 맺음말

중일전쟁 발발 후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좌우의 독립운동 진영은 이를 독립전쟁의 절호의 기회로 여겨 한중 공동항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들은 각 진영을 통일하고, 독립전쟁 수행을 위해 군대를 창설하였다. 중국 역시 일본의 대륙 침략이 가속화 될수록 조선과의 연대가 필수불가결한 일임을 자각하고, 공식적으로 한중연대를 제안하였다.

장개석의 전면항전 선언 후 한중은 다양한 방면에서 공동항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당시 한국독립운동세력이 정규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한중 공동항전은 실전에 참가하는 것 보다는 첩보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중국 측의 지원으로 한인장교들이 양성되고 있었지만, 중국군과 연대하여 전면전을 치를만한 역량은 되지 못했다. 또한 중일전쟁 당시 중국군 내부에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군은 일본어에 정통한 한국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한 적 후방 교란활동, 일본군 정보수집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우익 진영의 김구와 주로 연대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CC파이다. CC파는 중국국민당의 핵심세력인 진과부와 진립부 형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기관으로, 중앙구락부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이들은 오랫동안 김구 계열을 지원하며 함께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김구는 중일전쟁 후 후방교란 작전을 수행할 적합한 인물을 찾고,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조상연이다. 그는 1938년 천진으로 파견되어 이 지역의 일본군 정보를 수집해

98) 「한국국민당(김구파)」(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5, 63~65쪽).

99) 「韓國光復運動之隣爪」, 『中央日報』 1953년 8월 25일자.

100) 1912. 2. 13~1985. 6. 15 이명은 白峰, 麟植이다.

101) 國家報勳處 編, 『大韓民國獨立有功者功勳錄』 第5卷, 國家報勳處, 1988, 789쪽.

김구와 CC파에게 보내는 일을 하다가 일본에 피체되어 순국하고 말았다.

좌익 진영의 김원봉과 관계를 맺고 함께 천진, 상해 등 각 주요 도시에서 일본군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바로 삼민주의역행사이다. 역행사 역시 국민정부의 특무기관에 속한다. 역행사는 별칭으로 남의사라고도 불리었는데, 그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명분에서 조직명을 중화민족부흥사라 고치고, 간칭으로 부흥사라 하였다. 역행사와 김원봉의 관계는 황포군관학교를 통해 시작되었다. 역행사가 황포군관학교 4~6기생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김원봉은 역행사원들과 함께 주로 일본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집중했다. 이들은 적 정세 자료의 번역, 일본 전쟁포로의 관리와 훈련, 일본군 내 한인에 대한 선동과 탈출, 일본군 사병의 심리작전 진행, 중국군대에 협조해 선전활동 및 유격전쟁 참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봉길 의거에서 시작된 CC파, 역행사와 한국독립운동세력의 연계는 중일전쟁 이후 그들과의 공동 항전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 항일전쟁사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1931년 일본의 만주침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대부분의 관내지역이 부일, 친일화 되어 한국독립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일전쟁 후 일본이 완전히 점령한 천진과 상해 등지에서도 조상연, 박세열, 조선의용대 등이 중국 특무기관과 함께 적 후방 교란활동, 정보수집 활동 등을 전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았던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결코 중국 측의 일방적 수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측이 제공한 지원 내용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러한 지원에 대해 고마워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한 것과 중국 측이 그러한 요구를 들어준 것은 대일항전에서 한인독립운동세력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국력 차이, 미국·영국 등의 일본에 대한 완화정책 등으로 중국의 대일작전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국토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군 내부에 일본군 정보 수집을 담당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인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세 번째 중국 항일전쟁사의 의미를 전 세계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은 항일전쟁 시기 많은 아시아 피압박민족과의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시아 식민지국가들이 중국의 지원을 받았고, 또 연대를 이루어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다. 한국과의 공동항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한중의 공동항전이 단순히 한국과 중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함께 활동했던 기억은 한중 우호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국교 수립 후 한중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가 쉽게 복원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에 대항해 공동으로 투쟁했던 역사적 경험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앞으로 동반자로서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항전의

역사적 연대감은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재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범, 「조선의용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창간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 張世胤, 「中日戰爭期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對中國外交 - 光復軍 問題를 中心으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 , 「국제적 반제국주의 연대투쟁으로서의 한국독립운동 - 중일전쟁 전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6, 2006.
- 韓哲昊, 「1930년대 전반기 한중연대와 항일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국인사증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박영사, 1983.
- 干國勳, 『藍衣社復興社力行社』, 中華書局, 2014.
- 鄧元忠, 『三民主義力行社史』, 實踐出版社, 1984.
- 範少方, 『二陳和CC』, 河南人民出版社, 1993.
- 射俊美, 「金九與中國國民黨交往述論」, 『韓國研究論叢』 15, 復旦大學 韓國研究中心, 2007.
- 徐有威, 「1931~1937年間國民政府與朝鮮獨立運動」, 『抗日戰爭研究』 第2期, 中國抗日戰爭史學會, 1994.
-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上)』, 民族出版社, 2009.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2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Joint Espionage Activities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and CC Group · Lixingshi

Yang, Jisun*

After the outbreak of Sino-Japanese War, the independence movement camps of the left and right wings which defected to China to prepare for independence war took such outbreak as an opportunity for the independence war, and actively promoted the joint resistance by Korea and China. However, the Korean forces of independence movement didn't have a regular military at the time of Sino-Japanese War, and thus the joint resistance by Korea and China focused on special duties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actual battles.

Central Club was the organization which mostly launched united activities with Kim Gu of the right wing's camp. After the Sino-Japanese War, Kim Gu looked for the right person who can execute the confusion operation at the rear, and finally found Cho Sang-hyeon. Cho was sent to Tianjin in 1938 to collect inform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send it to Kim Gu and Central Club. However, he was later caught by the Japanese Empire and sacrificed.

Meanwhile, the organization which made ties with Kim Won-bong of the left wing's camp and launched activities of collecting Japanese military information at major cities including Tianjin, Shanghai etc was sanminzhuyi lixingshe. Sanminzhuyi lixingshe executed duties such as translating information on the enemy's circumstances, managing Japanese POW, training, instigating and extricating Koreans in the Japanese military, launching psychological operations against Japanese government troops, conducting propaganda activities by cooperating with the Chinese military and participating in guerilla wars.

The joint resistance against Japan by Korea and China after the Sino-Japanese War has great significances in the histories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the Chinese resistance movement.

First, it is the basis of changing the recognition assuming that independence movements couldn't take place because most of the areas turned pro-Japanese starting from the Japanese

* Non-ta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invasion of Manchuria in 1931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Second, it means that the mental and physical support received from China after the heroic deed of Yun Bong-gil was not one-sided benefits. Under the situation where manpower collecting information from the Japanese military was insufficient inside the Chinese military, the role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was very important.

Third, the significance of the history of Chinese resistance movement could be extended to the fight against global imperialism.

Finally, the historic bond of joint resistance is a powerful force that can deal with the drastic conservative swing of Japan, helping greatly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Key Words] Resistance by Korea and China, Central Club, sanminzhuyi lixingshe, fuxingshe, The Blueshirts, Cho SangYoen

